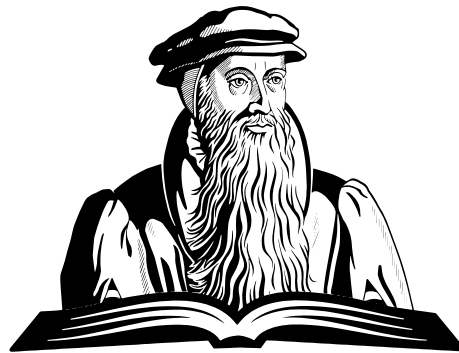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11: 희생제물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11

희생제물

강의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피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죄로 상실했습니다.

본문:

“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13-14).

강의 스크립트 11

때때로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과 같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새롭고 낯선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면 그저 그것에 대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를 부엌에 데려다 주어서 그가 음식재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또 이 모든 재료를 다 조합했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고 그 음식의 맛을 보는 법을 배우고 요리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를 주의 깊게 듣는 법을 배운 후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의 질감을 느낀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구약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시고 그들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주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의식적인 제사제도를 통한 것이었는데 이는 오감을 자극하는 생생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면 왜 구약의 예배방식은 이렇게 피가 흥건할까요? 왜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제사의 차이점이 가지는 신학적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희생제사들은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이 복잡한 구약성경의 규례에 속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서 어떻게 신약의 복음에 관한 주제들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5:1에서 긴급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정하신 장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규례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막에서 시행되는 희생제사와 이 제사를 드릴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를 수행하라고 명령을 주신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

다. 이 세 강의는 함께 가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제사가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제사는 다양한 때에 드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에 새겨진 공식적인 제사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제사는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과 경험에 있어서 중심적인 자리를 유지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사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대리적 속죄를 그 모든 유익과 함께 완전히 나타냅니다. 첫째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전환점이란 제가 생각할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9:45,46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40:34,35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긴장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공하시는 해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바로 제사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절정은 9:22,23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적인 속죄 교리와 관련된 신학적인 용어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대리적 속죄입니다. 이는 법적인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를 위하여 이루어진 속죄입니다. 바로 대리적 속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죄사함 (expiation)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속죄 (atonement)의 한 부분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형벌에 대한 값을 지불하여 죄책을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화목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무지해서 범하는 죄라 할지라도 죄는 속죄를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속죄는 대리적 제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며, 우리가 이 강의에서 연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역사에도 핵심적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사의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저는 제사들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각각의 구체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학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남은 구약성경 전체의 여러 곳에서 특정한 제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서에서 이 제사들을 보실 것이고 시편에서도 이 제사들을 보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쓴 글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약 성도가 어떤 특정한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는 그 제사가 가르치는 신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구약성경에서 이후에 나오는 구문들의 의미를 밝혀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체적인 제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제사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하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1:15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왜 화목제를 드렸느냐는 것임

니다. 이에 대한 답은 조금 후에 화목제에 대하여 다루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점에 대하여 제사들에 담겨 있는 용어와 신학적인 개념은 복음에 대한 신약적 해석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구약의 일시적이고 의식적인 희생제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희생제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사에 관련된 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짐승들은 제물로서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거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29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리고 보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나담과 아비후 그리고 고라와 같은 이들에게 행하신 심판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절차의 요소들 중에 몇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언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까? 먼저 이들은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이 짐승을 검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볼 때 이 짐승이 정결한 짐승인가? 이것은 흠이 없는 짐승인가? 예를 들어서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저는 짐승은 아닌가? 아니면 피부병이나 흉하게 망가진 부분은 없는가? 모든 다리의 길이는 동일한가? 등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과정이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것을 바치고 있었고 이는 이 제사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말 그대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짐승은 그 사람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백성들이 어떤 짐승이 비싼 짐승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참된 희생제사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음, 저 귀한 걸 아무개에게 주다니 저 사람이 진정으로 희생했군”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종교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검사할 때 제사장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 예배자가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경솔하게 그 분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책망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흠이 없는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주어지고 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둘째로, 제사장들은 손을 짐승들 위에 얹었는데 단순히 접촉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압박을 가해서 이를 테면, 한 손을 짐승의 머리에 의지하듯 눌렀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신을 짐승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죄가 상징적으로 그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짐승이 그 예배자를 대신하는 대속물이며 그를 대신하여 속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자신과 동일시했던 예배자는 스스로 짐승의 숨통을 끊었는데 이때 그는 죄가 죽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죄없는 대속물의 피 그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도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제사장들은 제사의 나머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넷째로, 그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7:11 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죽음에 대한 값을 치룹니다. 생명은 죽음의 얼룩을 제거합니다.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의 측면에 피를 뿌리며 제단 아래에 피를 붓는 것은 다양한 경우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때에는 분향단이나 시은소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죄에 대하여 용서함으로 죄에 대한 속죄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제사장들은 짐승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들은 짐승의 일부분을 태우거나 전체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태워지는 과정에서 짐승은 연기로 변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제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처소로 올라가는 즐거운 향기로 묘사하는 연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요리할 때 나는 향기를 맡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향은 종종 주변에 있는 집까지 퍼져서 다른 집에 사는 이웃들도 그들의 정원에서 그 냄

새를 말합니다. 특히 가장 맛있는 부위인 지방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단에서 태워져야 했는데 이는 당연히 최고의 부위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여섯째, 제사장들은 제물을 함께 먹고 교제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호의와 특히 화목제의 경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 사실은 언약적 약속의 심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제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가르쳐줍니다. 각각의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규례를 말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로, 번제 혹은 전체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가는 것”,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상승제 (ascension offering) 로도 부르는 번제는 레위기 1장 가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번제가 경배의 실질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첫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레위기 1장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제사제도의 핵심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성막 뜰에 있던 제단의 이름인 번제의 제단이 이 제사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제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인데 사람들이 가져온 다른 모든 제사들은 이 제사에 더해 하루 종일 드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번제라는 기초 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제도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번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번제는 홍수 후에 노아에게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바로 그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수없이 많은 세월동안 번제가 들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짐승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태워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구별되고 드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상징합니다. 이는 전적인 자기헌신의 모습입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졌으며 연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이 연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에서 마노도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사사기 13:20에 보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와 사자와 마노아의 대조적인 모습은 제사 그 자체에 대한 모습과 잘 어울립니다.

둘째로,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소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사에는 어떤 죽음도 피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의 일부분은 불에 태워집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인격을 받으십니다. 번제는 소제가 드러지기 이전에 드러져야 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생산된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유향이 보태져서 제물의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소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제물 전체를 불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말로 하면, 소제는 그 소제를 바친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러지거나 아니면 그냥 소제만 드리지만 이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로 자주 나타나는 것은 번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헌신과 공물이 결합된 것입니다.

셋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를 상징합니다. 이 제물의 일부분은 불태워졌고 일부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먹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제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화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목제가 없이는 어떤 교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제사에서 가장 비싸고 풍미가 돋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름이 필요하지도 않고 음식을 잡수시지도 않습니다. (이 사

실은 많은 곳에 나타나지만 특히 시편 50편을 보세요) 하지만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 면에서 가장 큰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이 이 개념과 용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13-18 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다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넷째,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죄책을 용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 (expiation)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속죄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벌칙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지하여 우연히 범한 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가 심각한데 이는 모든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의 거룩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위는 제사장들이 전임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예비된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구워집니다. 죄인은 네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회중이 있으며 통치자들이 있고, 각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속건죄입니다. 이것은 죄책 제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제사는 배상과 보상을 의미합니다. 혹은 잘못된 일에 대하여 교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제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죄를 용서합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를 절취한 것을 다루는데 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죄에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요약했는지 기억하세요.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두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죄책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일절 관용이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제사는 죄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위가 사함을 받지 않고 남아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제사들이 드러진 순서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성막에서의 과정에 대해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제사들을 드렸던 순서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처음 세가지 제사는 모두 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상적인 경배의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뒤에 나오는 두가지 제사는 속죄 곧 특정한 죄에 대한 치료책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나오는 두 제사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른 제사보다 먼저 드려야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레위기 9장을 보시면 정결을 위해서 제시된 속죄제와 보상을 다루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제사에 이어서 번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개념으로 진행되면서 다음으로 소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로 끝납니다. 피가 사용된 것은 속죄 곧 죄에서 깨끗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상승과 완전한 성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인 화목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패턴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고 성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분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사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이 모든 제사들을 한데 모아서 생각해 봅시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 자체로 죄를 속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4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도들은 당시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규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역사의 중심이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B.C)과 그리스도 이후의 해 (Anno Domini, A.D)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루하고 단조롭게 설명하는 이유는 제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제사가 전부 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함께 활짝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1:29)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복음과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시적인 의식들은 그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성취되었을 때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표지와 그림자 곧 모형과 지시물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취의 빛 아래서 유익을 누리며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약에 지속되던 많은 희생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최종적으로 드리신 제사와 대조됩니다. 히브리서 9:26에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고 히 10:14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셨고 그 죄를 위하여 심판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이 사실을 보세요. 그 분은 “흠 없고 점 없는” (19절) 희생제사입니다. 그 분은 성부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 중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온유하고 성부께 복종하는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아무런 강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유일하고 궁극적인 대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달래셨고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과 화해하게 하심으로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의 피는 그 백성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5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영혼이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린양께 내려놓되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복 6: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더불어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곧 로마서 12:1에 나오듯 합당한 (영적) 예배인 산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따르고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제사들은 화해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의 총체성을 표현합니다. 이 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의 죄책에서 시작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대속물의 준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죄를 덮거나 속죄하는 것으로 가고 이어서 보상과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독서와 설교는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시선은 심지어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사이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6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지정된 이들로써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구약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